꿈을 꾸는 침묵

전 동 근

감긴 눈 너머
푸름의 나비 하나
내 이름 모를 틈에 앉아 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한 침묵
지울 줄 알았던 슬픔의 어둠을
날개 끝으로 어루어 만진다

무의식은 가끔
내가 꿈꾸던 나를 꺼내 보여준다

그 순간
시간은 조용히
나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
작품 설명	시 <꿈을 꾸는 침묵>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영감을 받아 꿈을 무의식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감긴 눈은 의식의 정지럴, 나비는 억눌린 감정과 자아의 환영을 상징한다. '말보다 먼저 도착한 침묵'은 언어보다 앞서 진실을 전하는 무의식의 방식, 곧 꿈의 언어를 나타낸다. 이 시는 무의식이 불러오는 내면의 잊힌 자아와 기억들을 통해 자신조차 몰랐던 내면을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차분하고 상징적인 이미지 속에, 꿈이란 통로를 통해 이뤄지는 자기성찰의 순간을 담았다.